

화 답 송

위령의 날 셋째미사

시편 23(22), 1-3. 4. 5. 6

(후렴)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 라.

1.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 라. -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 고, -
2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 도, -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 다. -
3. 원수들 보는 앞에 서, - 제게 상을 차려 주시 고, -
4. 제 한 평생 모든 날 에, -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 니, -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시어, 당신 이름 위하여, 나를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고, - 당신 이름 위하여, 나를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, - 저에게 위안이 되나 주시네. 이, -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 니, -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 읍니다. 저는 오래 오 래 - 주님 집에 사오 리 다.

알 렐 루 야

(후렴)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- 야

우리는 하늘 의 - 시 민,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 다 - 리 네.